한국언론학보
2018년 62권 3호 277~308쪽
https://doi.org/10.20879/kjjcs.2018.62.3.010
http://www.comm.or.kr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한 고찰

'창신동라디오 〈덤〉'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김영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반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본 연구는 내용중심적인 측면이나 매체중심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존재론적인 조건인 구체적인/물리적인 삶의 공간 속에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포지셔닝 하고,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현장연구를 통해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계기로 또는 공동체미디어 실천 과정을 경유하면서 공동체적 감수성을 환기하게 되는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과정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주를 확장시켜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공동체적 삶을 엮어내는 플랫폼으로서 공동체미디어의 가능성/잠재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동체미디어 실천은 추상적인 인식 차원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공동체와 맞닿아 있다. 즉 공동체미디어의 정체성은 공동체와 공동체미디어의 관계 속에서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생성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잠정적 산물이다. 본 논문은 공동체미디어 '창신동라디오 〈덤〉'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미디어 실천 현장의 다이나믹을 포착하여 공동체미디어가 가진 다양한 정체성과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조망하려는 시도를 한 연구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공동체미디어, 현장연구, 참여관찰, 미디어 실천, 공동체적 감수성

* 이 연구는 201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 culturally@naver.com.
*** mjfalcon@hanmail.net

1. 들어가며

최근 공동체미디어의 수적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 -신문, 잡지, 웹진, 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공동체미디어가 무려 2백여 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 비록 2012~2016년까지의 누적 통계 수치이지만, 비공식적인 수치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250여 개 이상의 공동체미디어 활동그룹들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미디어 실천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변화의 기점을 마련한 행정적 지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로까지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보다 더 큰 이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시민사회 내부에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열망들이 잠재적으로 축적되어왔던 바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현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5개의 선행연구 중 2012년 이후에 나온 연구가 26개로, 학계에서도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제도적 논의의 차원에서는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12월 28일에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이 발의되어(의안번호 2004678), 해당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2016년 12월 29일에 회부된 바 있으며, 2017년 9월 21일에 상정되어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3] 해당 보고서에는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하며, 현행 제도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언급되어 있다. 현장의 변화와 학계의 논의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4]

본 연구는 참여관찰 중심의 현장연구를 통해,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공동체적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미디어 실천과 문화적 실천에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공론장'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공동체미디어의 역할 및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

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발간 '2016년 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6)'와 2017년 3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자료집 참조.

2) 선행연구 목록은 이 논문 말미에 정리해놓은 표 참조.

3)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8월 31일에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이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참조 바람.

4) 마포FM에 대한 연구(2016)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의 경우 '지역공동체라디오법(Local community Radio Act of 2010)'이 2005년에 소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2010년에 법안으로 상정되어 2011년에 대통령 서명으로 통과된 바 있다.

것도 중요하다.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은 지역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이 지향해야 할 지점들 중 하나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현장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듯이, 공통감각(common-sense) 또는 공동체적 감수성(sensibility of community) 차원으로의 이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장 구축에 대한 논의로 바로 나아가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5]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표현을 한다거나, 지역소식을 공유하며 지역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들은 정서적 울림과 공명하며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천으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 내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한 내용중심적인 측면이나 매체중심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존재론적인 조건인 구체적인/물리적인 삶의 공간 속에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포지셔닝 하고,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한 현장연구를 통해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장연구 대상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창신동라디오 〈덤〉'과 지역 관련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여러 활동단체들, 그리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및 활동가들이다. 연구대상의 범주를 공동체미디어와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내·외적으로 관련성을 지닌 대상들로 확장한 이유는 공동체미디어가 매체형/거점형/콘텐츠형/아이템형/교육형 등으로,[6] 개별 지역현황에 따라, 공동체(community)와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지역구성원들의 미디어 실천방식 또는 참여양태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몽동의 사유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전유하자면, 공동체미디어는 지속적으로 개체화 과정을 거치며 나름의 존재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미디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창신동라디오 〈덤〉'의 야외공개방송과 '꼭대기장터'의 결합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추후 논의하겠지만, 공동체미디어는 각각이 속한 지역사회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참여자들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미디어이다.

---

5)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지역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현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용산에서는 '화상경마장(입점)반대투쟁'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 직접적으로 인용/언급하지는 않지만, 창신동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사양추세의 봉제업- 공론장의 구축을 위한 미디어 활동가들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6) 이 분류 방식은 '잠정적'이다. 공동체미디어의 존재 방식은 해당 미디어가 처한 상황적 맥락, 즉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분류 기준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온라인 소식지 '마중'에서 분류한 방식을 인용한 것이다. 시몽동의 '개체화'와 관련된 사유를 경유하자면, 이후 공동체미디어의 실천 방식은 더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고찰에 앞서, 먼저 연구대상과 관련된 용어사용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 고찰의 범위와 연구대상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현장과 학계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7)]

최근 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확장과 활성화의 한 축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마을미디어'라는 용어가 현장 활동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을미디어'라는 단일한 표현만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2014년의 미디액트의 자료집 〈전국 마을미디어 팔도 유람 - 마을미디어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커뮤니티 미디어, 공동체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 공동체미디어 교육'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8)]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용어의 변화를 살펴보면, '커뮤니티'를 '공동체'로 번역하여 '공동체미디어'라는 용어가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3월에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도, '마을미디어'라는 표현보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조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자의 시각으로는 '마을미디어'라는 표현이 '커뮤니티/공동체'의 다차원적 특성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혹은 심층인터뷰 내용의 경우에 한해서만 정확성의 차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공동체미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마을'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감'과 관련하여, '마을미디어'라는 표현이 현장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도 있음을 밝혀둔다.

선행연구 고찰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대상의 포맷이 '라디오'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연구경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강진숙·소유석(2016)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연구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최성은, 2011; 김은규·최성은, 2013; 이만제, 2007)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라디오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홍숙영, 2015; 강진숙・이은비, 2013; 정의철,

---

7) 현재 '마을미디어'라는 표현이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미디어실천 현장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공동체미디어'라는 표현이 더 넓은 범주의 실천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문화사회연구소(2014.11) 자료집에 따르면, 마을미디어(village media)는 미디어 연구나 시민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디어 거버넌스(media governance)적인 관점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4)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을 제외한다면, 공동체미디어 사례연구들은 일정 부분 이론적 모색들을 담고 있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 사회적 맥락에 따라 미디어 실천의 양태가 다르게 전개됨은 당연한 현상이나, 그것이 어떤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론적 모색과 병행해서 파악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공동체 라디오만이 아니라 공동체미디어의 연구경향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한 강진숙(2017)의 연구는 공동체미디어 연구들을 주제, 방법, 쟁점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공동체미디어 연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폭넓은 의미에서 공동체미디어 연구들을 검토한 것에는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한 바와는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연구자의 현장연구 경험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실천과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즉 오프라인과 긴밀하게 엮인 공동체미디어 실천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 다 '공동체(커뮤니티)'라는 용어로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해당 연구대상들의 문화적 실천은 그 양상이 다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연구들이 '미디어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9] 이는 비단 선행연구에서만 발견되는 사항만은 아니다. 2017년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기획된 〈마을미디어 대표선수를 만나다〉라는 방송 -15곳의 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 을 들어보면, 현장 활동가들도 미디어와 공동체 중 어느 한 측면에 방점을 찍고 활동을 시작하였다가 공동체미디어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미디어에 대한 연구이기에 공동체미디어의 기능, 역할, 규범적 필요성 등의 연구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더해 공동체미디어가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토양 —(연합)환경—으로서의 공동체와의 관계에도 주목한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스(Williams, 1961/1984/2007)의 견해처럼,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사실상) 공동체(community)의 과정'이다. '커뮤니티 형성과정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순환적 관계'이다(채영길 · 김용찬 · 백용민 · 김예란 · 김유정, 2016)'.

선행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와 연구대상이 중복되는 연구들이 있으므로,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간략하나마 비판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이희랑(2013)

9) 마포FM에 대한 연구(반명진·김영찬, 2016)의 경우, 미디어 중심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에서 수행된 연구로,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의 연구는 참여관찰을 수행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같지만, 차이점은 이희랑의 연구가 미디어교육에 초점을 맞춰 초기 공동체미디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해 1년 8개월가량(2016~2017년)의 긴 참여관찰 과정 속에서 심층인터뷰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강진숙·이은비(2013)의 연구는 〈덤〉 초기에 참여했던 여성들 -인터뷰는 그 중 3인-의 미디어 실천을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차원에서 담아내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초기 〈덤〉 활동을 시작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해당 연구도 밝히고 있듯이, 〈덤〉의 DJ인 주요 참여자들만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채영길 · 김용찬 · 백영민 · 김예란 · 김유정(2016), 김예란 · 김용찬 · 채영길 · 백영민 · 김유정(2017)의 연구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한 부분으로서 〈덤〉의 미디어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 이희랑 · 김희영(2017)과 채영길(2017)의 연구도 〈덤〉을 언급하고 있는데, 채영길의 연구에는 '관악FM'과 '도봉N'이, 이희랑 · 김희영의 연구에는 '동작FM', '용산FM', '와보숑TV'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2) 이론적 고찰

'공동체미디어'는 미디어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이외의 실천적 참여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열리는 미디어라고 하겠다. 실천적 참여라고 한 것은,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의 참여 이외에도, 마수미(Massumi, 2011)가 말한 '비관계의 관계(relation of nonrelation)'의 측면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요소들이 조건화되는(conditioned) 과정도 준-관계적이라 볼 수 있기에 '실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10] 이런 접근은 참여의 범위를 다층위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확장해서 정의할 수 있게 해 준다. 시몽동(Simondon, 1958/2011)의 사유를 경유해서 본다면, 준개체적 단계에서 개체형성의 순간까지, 즉 '개체'라는 결정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여러 실천들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이는 공동체(community)라는 바탕과의 관계 속에 공동체미디어를 배치하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로드리게스와 공동연구자들(2014)의 비판적 견해를 참조하자면, 공동체미디어 실천은 역사적/사회적 배경 및 현장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엮여 있으므로, 미디어 실천이 지닌 함의를 해석하는 과정은 미디어 자체로 한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굳이 '공동체'라는 레

10) '비관계의 관계(relation of nonrelation)'와 '참여'에 대해서는, 마수미(2011)의 〈가상과 사건〉의 서문 '활동주의 철학과 사건발생적 예술'을 참조 바람.

이블까지 붙여가며 '공동체미디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1]

이런 문제의식은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에 더해, 현장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듣게 된 목소리들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들과도 관련되어 있다.[12] 지금까지 학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또 공동체미디어 실천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에 상응한 제도적 논의는 왜 여전히 미디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거칠게, 더 솔직하게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표현하자면, 현재는 활성화는커녕 추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지조차도 고민이 되는, 즉 공동체미디어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적 상황이다.

공동체미디어의 존재 근거 및 의의와 관련되어 늘 언급되는 것은 지역공동체(문화)의 활성화이다. 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문화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또한 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상호-인과적 관계이다. 시몽동이 언급한 것처럼, 개체의 지속가능성과 개체화는 개체와 연합환경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연합환경 또한 개체를 통해서 유지/강화/변화되기도 한다. 이를 공동체미디어(개체)와 공동체(연합환경)와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체와 연합환경과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 양립 불가능한 문제 상황에 대한, 관계와 소통을 통한 해(解)로서의 개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체화(individuation)'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시몽동은 개체의 이런 상태를 잠정적인 안정 상태, 즉 준안정적 상태로 표현한다.[13]

현재 한국 사회의 공동체미디어가 처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도 이런 접근 속에서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각의 개체가 처한 연합환경에 따라, 다시 말해 공동체미디어가 위치한 구체적인 맥락 —공동체와 공동체문화— 에 따라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방식은 문제의 해(解)로서 다양하게 개체화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별 공동체의 특수성/구체성에 따라 공동

---

11) 이를테면, '1인 미디어' 실천과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둘을 같은 미디어 실천으로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2) 2012~2016년 진행한 마포FM에 대한 연구, 2016년부터 1년 8개월 넘게 수행한 '창신동라디오 〈덤〉'에 대한 현장연구, 그리고 최근 1년 6개월 넘게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문동 공동체카페 〈도꼬마리〉와 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13) 시몽동의 '개체화의 원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황수영(2017)의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40-62쪽) 참조 바람. 개체와 연합환경에 대해서는, 시몽동(1958)의 저서에 대한 번역서(김재희, 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74-123쪽) 참조 바람. 시몽동의 '개체화'에 대한 사유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전해준다고 하겠다. 메신저로 대표되는 여러 유형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문제 상황)을 넘어 '소통'에 대한 욕망을 실현—현실태(the actual)로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기술적 대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체미디어 실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같은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형태적 범주 또한 개체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참여를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의 범주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양태를 정형화하여 규정한다면, 개체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가능성/잠재성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14]

그런 측면에서, 낭시와 아감벤의 논의를 통해, '공동체'와 '공동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김유정(2017)의 접근도 주목해 볼 만하다. 김예란과 공동연구자들의 견해처럼, 존재론적으로 전제된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가 노스탤지어(nostalgia)적이고 복고적인, 심지어는 이상화된 형태로까지 제기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정형화되어있고 심지어는 보편적으로 상정된 공동체의 이미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우만(2000)의 개념을 경유해 보면, 그런 복고적인 접근은 '고체(solid)' 근대성에 기초한 노스탤지어적인 '공동체' 이미지에 대한 천착이며, 이미 '액체(liquid)' 근대적 유동성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공동체'의 구성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우만의 지적대로 '유동하는 근대성'으로 인해 '공동체'의 구성이 점차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성'의 구현조차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유동하는 근대성'이라는 문제 —공동체 구성의 불가능성—에 대한 해(解)로서의 '공동체'와 '공동체성'은 '개체화' 중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몽동이 제시한 '개체화(individuation)'라는 개념을 경유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개체'는 양립불가능성이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소통과 관계를 통한 문제해결의 해(解)로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지역 사회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체'로서 '공동체미디어'를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 문제의 해결과 공동체문화의 활성화로 이미 답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이 한국 사회라는 공통분모의, 즉 동일하게 공유하는 바탕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맥락은 특수성을 띠

14) 지역별로, 공동체별로 제각각 실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동체미디어 실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매체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실험적 시도라든가, 공동체미디어가 속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공동체미디어를 실천하는 주체의 성격과 역량에 따라 공동체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이나 소출력 라디오만을 공동체미디어의 존재양식으로 정형화시키지 않고, 웹진,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 등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한 시도들/사례들에 대한 관심을 –즉 공동체미디어의 가능성과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태(the virtual)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며, 그에 따른 문제해결의 시도와 해결 방안은 특수한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창신동이라는 공간적 상황 하에서는 그 특수성에 부합한 문제해결 방식으로서의 '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문화'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는 회귀적 인과관계를 구축한다. 시몽동이 제시한 개념과 대응시켜서 다시 정리해보면 -개체, 개체화, 그리고 연합환경에 대해서-, 개체를 공동체미디어로, 연합환경을 공동체/커뮤니티로 볼 수 있으며, 공동체미디어의 개체화 과정은 연합환경(공동체)과의 관계를 구축하며 회귀적 인관관계 속에서 진화 또는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15]

공동체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실천적 참여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은 지역공동체 및 구성원들과 공동체미디어 간에 개체초월적인, 느낌 차원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공통감각(common-sense) 혹은 (공동체적) 감수성의 생성 차원에서, '정서의 구조'가 '탈영토화(탈구조화)'됨과 동시에 '재구조화'되는 과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수미(2011)의 사유를 재전유하자면, 실천적 참여와 체험의 반복은 이전 주체와는 다른 차이/주체성(subjectivity)의 생성을 가능케 한다.

공동체 미디어 실천의 과정은 (참여자들이) 마을살이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 차원의 감각적 환기와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맺음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마모루(2013/2016)는 'FM와이와이'의 사례를 들어,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함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10개 언어로 방송되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다언어 커뮤니티 FM방송으로, 비록 대지진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본 주류 사회에서 느껴졌던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내가 타자 앞에 나타나고 내 앞에 나타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문화 장치로서 미디어 실천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16] 다른 하나는, 미디어 실천 과정과 커뮤니티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함의이다. 비록 'FM와이와이'가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FM 방송국이지만, '단순한 방송국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문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결절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미디어/촉매'로서, 즉 '커뮤니티를 만드는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5) 추가적으로, 주체와 개체화에 대해서는 비르노(2001)의 '다중과 개체화의 원리'도 참조 바람. 『다중 - 현대의 삶 형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김상운 역(2004), 해당 내용은 '부록3' 부분(pp. 249-270).

16) '다문화'와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관련해서는 'MWTV'를 통한 이주 노동자들의 미디어 실천에 대한 연구(김영찬, 2006), 공동체미디어 '관악 FM'을 통한 이주 결혼여성들의 미디어 실천 연구(안진·채영길, 2015) 등을 한국의 대표적 사례연구로 들 수 있다.

마모루의 연구결과는 커뮤니티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의의를 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지만, '만드는' 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드는' 이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만드는' 혹은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미디어로서, 그리고 특히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체(커뮤니티)'를 '연합환경'으로서 구축하는 미디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공동체미디어의 가능성/잠재성을 한정지을 수는 없다. '개체'의 생성 과정(개체화 과정)은 개체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환경, 즉 '연합환경'을 구축하는 시도들이다.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지역의 특이성 속에서, 문제적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 속에서 공동체미디어는 발명적으로 생성되며, 개체/공동체미디어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축, 다시 말해 기존의 커뮤니티 구조를 재구축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를 생성한다. 일례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잠정적으로 분류한 '매체형/거점형/콘텐츠형/아이템형/교육형/복합형' 등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다양한 양태는, 단지 참여자들의 취향이나 조달 가능한 자원의 반영으로서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개체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이 현장연구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미디어 '창신동라디오 〈덤〉'을 중심으로, 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과 미디어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바 있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공동체미디어 활동과 접점에 위치하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공간적 배경인 창신동은 행정적으로는 종로구에 속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의류산업/시장과 긴밀하게 관련된 곳이다. 가파른 몇 갈래의 큰 길을 축으로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들이 경사를 따라 겹겹이 섞여 있으며 동시에 많은 봉제업 공장들이 주택가 사이사이에 공간적으로 퍼져 있는, 이른 바 도시형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창신동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를 전후로 이 시기에 동대문과 청계천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전한 봉제공장들이 모여들면서 주거-산업 기능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이다(김지윤, 2015).[17]

공간적 배경인 창신동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공동육아 관련 실천들이다. 공동

육아와 관련된 실천들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창신동에서 공동체미디어 활동의 시작점과도 맞닿아 있기에 연구대상의 배경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창신동은 공동육아 관련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여러 활동 단체들이 있지만,[18]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해송지역아동센터〉(이하 '해송'으로 약칭)가 가장 유의미하다. '해송'의 경우 1980년대부터 창신동에서 공동육아와 돌봄 관련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1978년에 '어린이 걱정 모임', 1984년 '해송아기둥지', 1998년 '해송어린이둥지공동체', 2005년 〈해송지역아동센터〉로 발전을 하며 지역과 30년 넘게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다.

'창신동라디오 〈덤〉' 활동 초기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이희랑(2013)의 연구를 참조하자면, 〈덤〉은 2012년부터 서울마을미디어교실 교육 참여를 시작으로, '창신동의 청소년공부방에서 활동하던 교사 그룹과 학부모들이 초기 의지를 모아서 함께 라디오 교육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했고, 그 결과 다수의 봉제인들이 함께 결합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로 청소년 공부방, 지역청소년센터 '친구네'의 설립 배경과 관련하여 '해송'은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덤〉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희랑(2013), 강진숙·이은비(2013), 이희랑·김희영(2017)의 연구 외에도, 채영길 · 김용찬 · 백영민 · 김예란 · 김유정(2016), 김예란 · 김용찬 · 채영길 · 백영민 · 김유정(2017), 채영길(2017)의 연구가 있다.

이미 〈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음에도, 〈덤〉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선행 연구들과는 전혀 다른 개인사적/사회운동적 맥락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덤〉이라는 연구대상의 선정은 본 연구진 중 한 연구자가 이미 '해송아기둥지'와 3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기에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신뢰관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연구자의 이러한 배경은 기존의 〈덤〉에 대한 연구들 -즉 공동체미디어를 연구할 목적으로 연구자가 전혀 모르는 낯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 연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역사적으로/맥락적으로 한층 풍부한 논의와 두껍게 기술하기(thick

17) 창신동은 인접한 숭인동 지역과 함께 2007년 4월에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창신동 일대는 84만6100㎡ 규모로 서울 뉴타운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지정 당시 9,083가구 2만4524명이 사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이자 봉제공장 3,000여 곳이 밀집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뉴타운 혹은 도시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의 문제와 지역구성원들의 반대로, 2013년에 숭인동과 함께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험적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창신 · 숭인 뉴타운 지구 통째로 첫 해제", 한겨레신문, 2013년 6월 13일자 기사 참조〉

18) 〈해송지역아동센터〉, 〈청암지역아동센터(청암교회)〉 등을 비롯하여, '종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교사들은 '창신마을넷'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창신마을넷' 활동은 지역청소년센터 '친구네' 개소, '꼭대기장터' 참여, 지역오케스트라 구성 등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description)를 가능케 해줄 것이다.

전술했듯이, 본 연구는 〈덤〉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덤〉뿐만 아니라 〈덤〉과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내·외적으로 관련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도 연구대상의 범주에 포함된다.[19] 이런 접근을 취하게 된 근거는, 마포FM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반명진·김영찬, 2016), 2016년 5월 초부터 구체적인 현장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과 관련한 범주를 확장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간략하게 밝히자면, 미디어와 내·외적으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이들의 참여 방식과 경험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및 제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심층인터뷰와 결합된 참여관찰이라는 질적 연구 방식을 취한다. 실제로 공식적인 심층인터뷰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여관찰 과정에서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곤 했다. 때로는 참여관찰 과정에서 우연한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언급들을 접할 수 있었다.[20] 참여관찰 과정은 단지 라포(rapport) 형성과 심층인터뷰의 내용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해석의 깊이와 폭, 더 나아가 연구대상을 분석/해석하는 연구자의 감수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번 현장연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현장연구의 의의는, 참여관찰의 밀도를 높여 공동체미디어가 생동감 있게 작동하는 지점까지 접근해보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현장연구 대상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게 되었다.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위와 양태는 그 특성에 따라—지역공동체마다의 문화적 실천의 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덤〉의 주요 활동가들 외에도 지역공동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참여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연구는 2016년에 4월에 공동체미디어 활동가와 연락을 하여 현장연구 진행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2016년 5월부터 참여관찰을 시작하였다.[21] 참여관찰은 공동체미디어 스튜디오 내

---

19) 연구대상의 범위는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공동체의 맥락)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를 참조 바람.

20) '연구방법은, 연구문제가 무엇이고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또 연구 환경은 어떠한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영찬, 2015).' 현장연구와 관련하여 이오현(2015)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참여 관찰을 통해 생산 과정이나 생산자 집단의 행위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나 문제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참여관찰에서 발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또한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문서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동시에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에서 진행된 참여자들의 제작과정을 비롯하여, '꼭대기장터(야외공개방송)', '창신마을넷', '낙산성곽공원 야외공개방송(퇴근길 여유 한 잔)', '봉제인 음악회', '주민음반제작 기념발표회' 등 공동체미디어 활동과 지역공동체 및 구성원들과 접점 내지 마주침이 형성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무엇보다 좋은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은 작은 도서관 〈뭐든지 도서관〉에서 진행된 철학세미나에 주기적으로 참여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세미나 참여를 통해 연구자는 미디어 활동가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철학세미나에 참여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철학세미나에서 다루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관심도 있었지만,[22] 철학세미나 참여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덕분에 미디어 활동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현장을 더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 제작과정과 관련해서는 단지 관찰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2017년에 진행된 8기 라디오교실 교육 참여, 미디어 활동가 조르바와 실험적으로 시도한 콘텐츠 제작, 라디오사연 참여 -'파파야의 스토리가 있는 힐링여행'-, 2017년 꼭대기축제 관련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후기 녹음 참여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프로파일

구분	별명	직업	성별	연령
A	가락	청년활동가	남	30대
B	-	도시재생센터 코디	남	40대
C	동키	취업 준비 중	남	20대
D	지니지니	공방운영	여	50대
E	레오	도서관 사서	남	50대
F	둥치	문화기획자	남	40대
G	동대문그여자	봉제인	여	50대
H	파파야	봉제인, 방송인	여	50대
I	조르바	미디어 활동가	남	40대
J	같이가면	미디어 활동가	여	40대

이런 과정 속에서 참여관찰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2016년 8~9월에 1차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관찰이

21) 공식적으로 현장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6년 1월 16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창신동/숭인동 마을탐방에 참여하였다. 이런 접근은 발터 벤야민의 '걷기'를 응용한 시도였는데, 운 좋게도 공동체미디어 활동에 참여한 바 있는 지역 청년(인터뷰 대상자 C)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22) 니체와 스피노자에 대한 텍스트였다.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1차 인터뷰와 참여관찰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감수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라포 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지게 된 문제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층인터뷰를 잠시 멈추고 현장의 참여관찰을 더 진행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기한을 예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공동체미디어 활동에 대해 심층인터뷰 이전까지 -2017년 11월 말- 미디어 활동가들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진행되었다.[23] 결국, 현장에서의 참여관찰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게 된 비공식적인 담화와 현장에서의 경험들 속에서, 연구대상에 대해 좀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하여 심층인터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미세조정(fine tuning)하였다. 2차 인터뷰는 2017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현장과 관련한 공식적인 참여관찰은 2017년 12월까지 수행하였다.[24]

이에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및 현장연구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참여의 범주는 어떻게 확장해서 볼 수 있는가?

연구문제2.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가?

4. 연구결과

이 현장연구의 의미는, 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경험에 더해, 공동체미디어와 접점에 있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경험 —실천과 참여—을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주를 좀 더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는 데 있다.

마포FM에 대한 연구(반명진・김영찬, 2016)와는 달리, 이번 창신동라디오 〈덤〉 사례연구

23) 현장연구 진행 초기에는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추천받아 연구를 진행했지만, 참여관찰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라포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인터뷰 대상자 섭외의 어려움은 덜 수 있었다.

24)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과 관련하여 삼각접근법(triangulation)적인 측면에서,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담화 및 관련 문헌들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성찰을 병행하였다. 연구방법에 언급한 바처럼, 그런 이유로 심층인터뷰도 1차(2016년)와 2차(2017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된 것이며, 심층인터뷰 질문도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공통되는 질문 내용에 더해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 그 내용을 상이하게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는 동 단위의 인문지리학적인 공간에서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에 주목한 연구이다. 참고로, 마포FM에 대한 연구에서는 '①지역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제작 참여)과 정체성의 재구성, ②지역성/대안성/콘텐츠 중심에서 시민성/공동체성 중심으로의 진화, ③동적인 공동체적 삶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추동하는 플랫폼' 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번 〈덤〉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통해 ②와 ③의 결과와 관련하여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결을 다른 각도에서 읽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미디어 실천이 공동체적 감수성의 형성과 발현이라는 실천적 경험의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미디어 내적인 참여, 즉 콘텐츠 제작이라는 직접적 참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미디어 외적인 참여를 통한 간접적 참여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미디어 내적인 참여와 외적인 참여—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로 접근하였을 경우, 공동체적 삶을 엮어내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주를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5]

1)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공동체적 감수성' - '정서의 재구조화'

> 나는 그 동안에는 내가 이 동네에서 사십 몇 년을 살았어도, 남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이 내 얼굴을 많이 보았지만, 저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내 자신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던 거예요…〔중략〕…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취재도 다니고, 내 마을이 어떤가를,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말을 들어보면서, 그때서야 내가 이 마을에 주민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남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지. 내가 먼저 말을… "이번에 라디오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내 방송의 성격은 이래요." 이런 것을 내가 마을사람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인터뷰 대상자 G)

---

25) 이는 공동체미디어의 다양한 실천들이 단지 주류 미디어 혹은 레거시 미디어의 실천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카운터-헤게모니(counter-hegemony)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과 연동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온라인의 경우 팟캐스트, 유튜브, 소셜미디어(e.g.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매체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참여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였을 경우, 공통의 영역(commons)에 대한 다중의 실험적 실천들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6-17년 촛불광장의 미디어로의 변환, 미디어성(mediality)의 발현, (이 과정에서 보여 준) 소통과 교감의 다양한 표현들 등은 미디어 플랫폼의 범주를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G의 언급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공동체미디어 실천(제작 참여)을 통해 '마을'이라든가 '동네'라는 공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각을 구체적으로 다시 환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G의 경우 유년시절부터 창신동에서 거주하였으며, 결혼 후 봉제업과 아이 양육 등에만 주된 관심을 두었을 뿐 삶의 터전인 창신동과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와 닿는 느낌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2012년 마을미디어교실에 참여하여 공동체미디어와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환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수위의 '공동체'에 대한 느낌,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느낌이 구체적인 느낌으로 재구조화되는, 즉 공동체적 감수성으로 정서의 구조가 재구조화되는 계기를 공동체미디어 실천이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정서의 재구조화 과정은 실천의 수위에서도 변화로 이어진다.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방송콘텐츠 구성을 위한 기획으로 시작되었던 미디어 실천들 —이웃들에 대한 인터뷰와 지역에서 걷기 좋은 길 소개 등—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에 오래 살아오신 노년층 -이웃,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본인이 오래 생업을 이어왔던 봉제업의 사양 추세에 대한 고민과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지역의 봉제업종사자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정서의 변화는 경험과 실천의 층위와 맞닿아 있다. 물론 표상이라든가 특정한 관념에 대한 사유가 정서를 추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동체에 대한 느낌이,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계기로 구체적 삶의 실천과 연동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G는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적인 방송 제작 활동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봉제 일을 하면서도, 〈덤〉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간접적인 참여, 미디어 외적인 실천-, 지역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봉제인 방송을 하게 되면서, 마을을 세상을 알아가고, 또 봉제인들의 삶을 알아가고, 지금, 예전의 삶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봉제인이라는 게 자부심, 자존감도 생기고. 사랑을 얻어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 H)

H의 경우에도 G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계기로 개인 차원에서 삶에 대한 느낌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한 측면에서도 정서적 변화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H는 직접적인 본인의 방송콘텐츠 제작 차원에서 더 나아가, '봉제인 음악회'와 '꼭대기 장터(축제)'

에서 진행자로 참여한다든가, '소통공작소'의 봉제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다든가 등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렇게 G와 H의 사례는 미디어 실천과 주체의 구성이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주체의 재구성 과정은 의식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서적 차원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이번 현장연구에서 재확인하게 된다.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경우에도, 삶의 터전인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구체적인 마주침의 경험, 즉 구체적인 실천을 경유하면서, 정서의 구조가 공동체적 감수성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었다. 물론, 정서의 재구조화는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주체성의 재구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위의 인터뷰에서 보듯이 그것은 어떤 계기/마주침에서 촉발된다. 설령 상징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수면위로 떠오른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주체성으로 이행되지는 않는다. 정서의 재구조화는 지속적인 실천들과 마주침의 경험들, 그리고 정서적 이행의 체험과정 속에서 구조화된다.

2) 공동체미디어 내/외적인 실천과 직접적/간접적 참여 - '비관계-관계'의 변환

이번 참여관찰을 통해서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참여를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었다. 직접적인 참여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방식의 참여로 -미디어 내적인 실천-, 간접적인 참여는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미디어와 지역공동체가 만나는 접점들에서의 참여로 -미디어 외적인 실천- 나누어서 보고자 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위의 연구결과 1)에서 언급된 인터뷰 대상자들의 미디어 실천은 직접적 참여 유형에 속한 미디어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실천과 참여에 대해 이원적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학문적 실익보다는 현장 활동에 더 방점을 둔 접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장연구 특히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에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 상황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공동체미디어의 생존' 즉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디어 활동가들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실천들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이런 공동체미디어 실천들의 가능성/잠재성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 결과물로서, 유형의 형태로 남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참여들로 범주를 한정하여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접근하고 평가한다면, 콘텐츠라는 결과물로 남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마주침과 이 과정에서의 정서적 이행, 감수성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 의의를 연구에 담아낼 것인가. 이는 연구결과 1)과도 이어지는 지점이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주와 정체성'과도 관련되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었든, 꼭장(꼭대기장터)에 놀러 와서 물건을 사든,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참여니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중략]… 이제 마을에 어디를 가면 산책길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어느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으면, 참 노을이 예쁘고, 이런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G)

G의 인터뷰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공동체미디어와 지역공동체 및 구성원들과의 접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연구자가 2016년 5월부터 참여관찰을 시작한 꼭대기장터의 경우, 지역의 여러 활동단체들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장터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공동체미디어가 엮여진 지역 행사이다. 기본적인 틀은 셀러(seller; 중고물품/제작물품 판매 또는 음식판매)라 불리는 이들의 참여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공동체미디어가 진행하는 야외공개방송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래, 악기연주(솔로 및 협연), 댄스 공연 등이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접점이 발생하는 다른 지점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2016년에 낙산성곽공원길에서 5~10월 매월 셋째 주마다 열린 야외공개방송 '퇴근길 여유 한 잔', 2017년에 각각 3회째와 4회째를 맞이하는, '봉제인 음악회'와 '주민음반제작 기념발표회'의 경우에서도,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미디어 콘텐츠 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직접적 참여), 간접적으로 스태프라든가 관객으로써 함께 공동체미디어 실천에 참여하고 있었다(간접적 참여). 이렇게 현장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미디어 외적인 실천과 간접적인 참여의 과정들 또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공동체미디어도 형식적으로는 미디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부분이 부차적인 사항으로만 다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실천과 관련한 참여의 범주를 콘텐츠 제작이라는 측면으로 닫게 될 경우, 다시 말해서 미디어 내적인 참여로 그 실천의 범주를 한정하는 경우에, 공동체미디어와 지역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참여의 스펙트럼들, 즉 실천의 다각적인 양태들, 비관계-관계의 전환적 마주침의 계기가 되는 접점들을 놓칠 우려가 있다. A의 경우를 보면 오프라인 상에서의 마주침(간접적 참여)을 통해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느낌이 환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덤〉과의 마주침은 활동 중심으로라기보다는 …[중략]… 예를 들면, 꼭대기장터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덤에서 활동하는 조르바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거나 …[중략]…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덤〉 방송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지점들을 갖고 질문을 주고받는… (인터뷰 대상자 A)

A의 경우, 방송콘텐츠 청취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 즉 공동체미디어 외적인 여러 활동들-위에서 언급한 '꼭대기장터'를 비롯한-에서 공동체미디어, 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 공동체미디어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과 주로 만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마주침들이 이후에 방송 청취로 이어지게 되고, 그때 듣게 되는 방송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공동체 구성원의 방송이기에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디제이가, 내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분이 디제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분이 자기의 살면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되게 가까운 거리감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울리는 울림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중략]… 그러면서 라디오 〈덤〉 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한 사람이라는 존재감, 지역에서 있고. 그 사람이 디제이가 돼서, 자기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 그 사람 자체가 존재의 감들을, 혹은 존재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부분들이고… (인터뷰 대상자 A)

마포FM 연구(반명진·김영찬, 2016)도 지적한 바 있듯이, 공동체미디어의 강점 중 하나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관계가 콘텐츠 수용에서도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인터뷰에서는 조금씩 방송을 들어보게 되었다고만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A는 나중에 본인의 활동 공간에서 기획과 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참여(직접적인 참여)라는 접점까지 시도해보기도 한다.[26]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경우 오프라인의 마주침의 계기들도 온라인의 미디어 생산/수용 못지않게 유의미한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공동체미디어가 외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기획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 및 구성원들과 공동체미디어의 접점이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이 과정에서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주에 대한 시야의 확대이다.

---

26) A가 활동했던 〈한다리중개소〉의 기획 프로그램인 '창신은 대학'의 참여자들(2기생)은 참여후기를 방송콘텐츠로 제작했다(2016년, 〈덤〉 234회 방송). 이후 '창신동라디오 〈덤〉'과 〈한다리중개소〉의 접점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2017년부터 '창신동라디오 〈덤〉'에 참여하게 된 청년활동가와 〈한다리중개소〉 활동가들 및 창신숭인지역 청년들이 모여 함께 '신인류자키'라는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 전에는 (창신동라디오 〈덤〉과 〈뭐든지도서관〉) 큰 접점은 없었고, 한 1년 6개월 전에, 창신마을넷이 끝나고 나서, 자기 고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러면 공부를 하자, 철학 공부를 하자, 그래 가지고, …〔중략〕… 그래서 (철학세미나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리고 접점이라는 것은, 행사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참가하게 된 거죠. …〔중략〕… 여유 한 잔, 꼭대기 장터, 몇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인터뷰 대상자 E)

E는 직접적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바는 없으며, 간접적인 참여로 공동체미디어와 마주침을 경험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다. 물론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는 중요한 사항이다. 참여자들이 미디어 생산자이자 수용자라는, 직접적인 참여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참여(미디어 내적인 실천)에 더해서 외적인 측면에도 주목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든가, 제작된 콘텐츠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온라인으로 소통/교감하는 것 -홈페이지 댓글이라든가 사연 참여 등-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공동체미디어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여관찰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주체의 형성은 '비관계적 요소들'이 어느 순간에 '사건'이라는 '관계의 존재'로, 상징적으로 출현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비관계'가 '관계'로 변환되는 계기, 비관계적인 연결들과 배치들 속에 있던 마을에서의 삶이 —비관계적 접점들로 엮여져 있던 삶이— 참여를 매개로 관계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과정, 이런 과정은 윌리엄스가 말한 '커뮤니티 과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Williams, R., 1961/1984)'과도 맞물려 있다.

참여의 범위를 콘텐츠 제작이라는 직접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계-관계라는 측면으로 좀 더 유연하게 확장했을 때,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참여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공동체미디어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와 상상력 넘치는 기획들과도 관련된다.[27] 이런 비관계의 관계적 변환의 계기들(마주침들)을 참여의 범주로까지 포함하여 보았을 때, 청취율을 통해서만 소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수, 팟빵 다운로드 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 등 트래픽- 우려도 보완 가능하며,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사회적 가치 또한 좀 더 유의미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27) 공동체미디어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연합환경(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매체형/거점형/콘텐츠형/아이템형/교육형'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 공동체미디어의 실천 방식은 더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한다. 온라인상의 클릭 수나 조회 수 등 양적 측면으로 공동체미디어 콘텐츠가 얼마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를 근거로 한정지어서 공동체미디어의 실천의 의의와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공동체적 삶을 엮어주는 플랫폼 - '마을살이, 관계 맺음'

> 제가 〈덤〉뿐만 아니라, 〈아트브릿지〉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OOO간〉이 있기 전에는, 그냥 나는 창신동에 살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창신동을 떠나겠지 라고 생각을 쭉 해 왔죠. 그러다가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창신마을넷〉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구나...〔중략〕...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충분히 역동적일 수가 있구나. (인터뷰 대상자 C)

C는 유년시절부터 청년기로 접어들 때까지 창신동에서 살았고, 직접적으로 미디어 활동을 했던 바 있다. C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결과 1)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추상적 차원의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와 구체적인 삶의 차원의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는 실천의 차원에서 다른 위상을 지닌다.

> 어쨌든 그런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라디오가 잘 하고 있지 않나. 사실 청년음악모임도 만들어졌고. 점점 그렇게 음악이든, 그런 쪽으로 하는 분들을 엮어가는 역할을. 청년음악모임도 있고, 예술인모임도 있고, 중장년층 이상의 예술인모임도 있고, 형성돼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을 담아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공작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장이라면, 라디오 〈덤〉은 소리예술의 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대상자 B)

> 저는 그게, 저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이게 최소한 그냥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에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발언, 그 얘기하는,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략〕... 그래서 저는 그게 한 개인이 이 사회하고 연결되는 감각을 갖게 되는 데에 되게 중요한 그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자기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회와 연결

된다라는, 그거에서 사람이,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서는, 그 주인공으로 서는 그 느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중략〕… 이제 사람들이, 작은 규모더라도 계속 어떤, 그 순간에는, 그 시간, 일정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거가 계속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제 언어화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그게 수다 떠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인터뷰 대상자 J)

윌리엄스(1961/1984)가 언급한 바처럼,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사실상) 공동체의 과정-공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리하여 공동의 활동과 목적을 지니며, 새로운 수단의 제시와 수용과 비교를 통해 성장과 변화의 긴장을 성취를 이루는 일-'임을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이는 공동체적 감수성으로의, 정서의 재구조화 과정과 연동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공동체'라는 레이블을 붙여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접근성의 확대로 '1인 미디어' 실천들이 우후죽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참여'에만 방점을 두어서는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가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공적지원 및 제도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공적지원과 제도의 마련은, B와 J의 언급처럼,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가치와 의의가 공동체적 삶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었을 때 힘을 받게 된다.

예. 인형극을… 우리는 도시재생 공모가 아니고, 서울시 공모를 한 거예요. 이웃 만들기라는 …〔중략〕… 그래서, 내가 〈덤〉을 해보니,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게 다 맞물린 거에요. …〔중략〕… 그래서 〈덤〉 시작하면서 〔라디오교실 4기〕, 국장님을 알게 되었고. 아트브릿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공연한다니까, 자기네도 공연이 있으니, 같이 하자…〔중략〕… 오늘 같은 경우, 너무 좋아 (인형극 녹음을 위해, 지역 내의 여러 활동단체들의 콜라보). 동네에 이런 게 (공동체미디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창작단 하고, 우리 하고, 아트브릿지 하고, 문화예술 이렇게 …〔중략〕… 작년에 (2016년) 밑에서 했던 것(퇴근길 여유 한 잔)… 한 달에 한 번 하는… 저는 그거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중략〕… 제가 봤을 때는, 작게나마 우리끼리 뚱땅뚱땅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노래도 틀어주고, 저녁에… 특히 이렇게 하면은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 느낌. (인터뷰 대상자 D)

2013년도 〈뭐든지예술학교〉를 여기 위에다 마련한 거죠. …〔중략〕… 그렇죠. 2014년도에, (아트브릿지는) 연지동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뭐든지예술학교는 비어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있다가, 나머지는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예, 들어가자, 창신동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 저희가 〈덤〉에게 반을 떼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좁고 조금 생활방식이 다른 거죠.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차라리, (뭐든지예술학교) 옆에 공간이 나왔다고 하길래, 옮긴 거죠… 처음에 저도 라디오 〈덤〉의 방송에 되게 공감이 되었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공간을 같이 쉐어할 수 있었던 …〔중략〕… 〈덤〉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해요. …〔중략〕… 저는 이번 문화밥상행사가 좋았던 것이, 동네의 무수한 단체들과 친해지고 알게 되었다는… 동네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동네 효행본부, 새마을부녀회, 각종 단체들. 뿐만 아니라, 봉제산악인협회, 봉제협동조합 다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터뷰 대상자 F)

물론 마을살이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음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은 공동체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현장연구 참여관찰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회적 예술기업 〈아트브릿지〉의 '창신동 문화밥상' 기획을 사례로 들 수 있다.[28] 해당 사례는 지역 내 여러 커뮤니티 그룹들 간의 협업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여러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연구자가 주목했던 것은 '문화밥상'의 한 코너로 기획된, 공동체 공연 '단지와 3번 마을버스' 사례이다. 해당 공연은 창신동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인형극 형식으로 담아낸 것으로, 영상제작은 〈창작단〉, 녹음스튜디오는 '창신동라디오 〈덤〉', 인형은 〈단지네〉, 그리고 전체적인 플랫폼은 〈아트브릿지〉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비록 본 연구가 '창신동라디오 〈덤〉'에 주목한 연구이지만, 공동체미디어의 실천방식과 관련해서, 마을살이와 관계 맺음을 엮어내는 (미디어)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참고해 볼 만한 사례다.

그니까 마을에서의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서로 관계 맺음이 되면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H)

---

28) 〈아트브릿지〉는 사회적 문화예술기업으로, 2012년부터 〈뭐든지도서관〉과 지역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창신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번 '신나는 봉제로 여행 - 창신동 문화밥상'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으로, 5~10월(7월 제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창신동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그 이외에도 〈아트브릿지〉는 2015년과 2016년에 꼭대기 장터 기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H의 언급처럼, 마을에서의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은 '삶'과 동떨어져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례는 〈덤〉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자가 최근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있는[29] 공동체 미디어 참여자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방송참여 이후의 뒷풀이가 주된 목적이라는 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너스레는, 공동체미디어가 미디어 제작이라든가 방송 내용 자체의 차별성에 앞서 참여자들의 관계를 엮어내는,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맺음을 엮어내는, 즉 오프라인 상의 실천에 더 큰 강점과 정체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이런 모습들은, 참여관찰 과정에서 만나게 된 〈한다리중개소〉를 중심으로 한 창신·숭인 지역 청년들의 미디어 실천에서도 발견된다. 〈한다리중개소〉의 기획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지역 청년들은 수제맥주 만들어 보기, (그 수제맥주로) 일일카페 열기, 지역의 공동체미디어 방송에 참여해 보기 등등의 인연으로 엮여지다가, 최근에는 '창신동라디오 〈덤〉'의 청년활동가와 함께 방송을 제작하며 공동체미디어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 그때는 〈덤〉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음반 제작하는 취지야 다 알겠지만,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개인들이 탁~ 하고 봉우리가 터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그것이 서로 교감을 하게 되는, 그럴 때 좋았다. 이게 그 맛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인터뷰 대상자 I)

I는 주민음반 제작이라는 계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마주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교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역의 공동체미디어가 음반제작이라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데 일차적인 의의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경유하면서 엮어지게 되는 관계 맺음의 확장이다. 연구결과 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별적인 음반제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미디어 내적인 실천), '주민음반제작 기념발표회'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및 구성원들과 공동체미디어는 접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반제작과 발표를 하는 이들(미디어 내적 실천, 직접적인 참여)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간접적인 참여)은 하나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엮어낸다. 이는 비단 '주민음반제작 기념발표회'에

29) 동대문구 공동체카페 〈도꼬마리〉를 중심으로 '공간미디어(플랫폼)'적인 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해 1년 6개월 정도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든 것은, 공동체카페 〈도꼬마리〉에서 녹음되어 팟캐스트로 송출되고 있는 '이문동 아재들의 SF이야기' 참여자들이다.

만 국한되지 않는다. '봉제인 음악회'와 '꼭대기 장터(축제)'에서도 '음악회'와 '야외공개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미디어 내적인 실천)와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실천들(미디어 외적인 실천, 간접적 참여)이 발생한다. 즉 공동체미디어라는 개체를 통해서 연합환경(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들 —'비관계'의 '관계'로의 변환—이 일어난다.

'창신동라디오 〈덤〉'은 2018년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동함과 더불어, LED 모니터를 통한 소통구조 기획이라는 실험적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라디오라는 기술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소통과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J의 언급에서 공동체미디어가 또 다른 개체화 과정을 경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 라디오라는 거에 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 하고의 소통구조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생각을 한 번 해 본 거예요…〔중략〕… 소통구조를, 동네사람들이 소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뭐 LED 모니터가 돌아가든, 게시판이 있든… (인터뷰 대상자 J)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방식과 내용은 오프라인과의 관계 속에서, 즉 연합환경-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가변적으로 다르게 전개된다. 한국 사회라는 보다 큰 연합환경을 공통의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동체는 구체적이며 특수한 연합환경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공동체미디어가 위치한 연합환경으로서의 공동체는 보편적인 위상을 지니지만, 실천적 수위에서 접하게 되는 개별 공동체는 구체적 상황인 것이다.

공동체미디어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상황,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맺음 방식,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미디어 실천 양상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매체이다. 이번 현장연구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도, 그리고 장기간의 참여관찰 과정에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도, 구체적인 공간으로서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즉 구체적인 실천의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이었다.

5. 나가며

참여관찰 중심의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계기로 또는 공동체미디어 실천 과정을 경유하면서 정서의 구조가 재구조화되는, 즉 공동체적 감수성을

환기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실천으로서의 참여의 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비관계-관계'적 변환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범주를 확장해 볼 수 있었다. 셋째, 공동체(community) 과정으로서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엮어내는 플랫폼으로서 공동체미디어의 가능성/잠재성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이번 현장연구를 통해서 재확인하게 된 바이지만, 공동체미디어 실천은 추상적인 인식 차원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의 느낌, 즉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공동체와 맞닿아 있다. 촛불국면을 전후로 미디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은 시시각각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론에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런 현장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으로서의 방송법을 통해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사회적 가치—공동체성과 공동체적 삶 관련—에 대해 주목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들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조율하는 과정으로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30]

공동체미디어의 정체성을 어느 하나의 보편적인 유형으로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미디어 '창신동라디오 〈덤〉'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미디어가 가진 다양한 정체성과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일면을 포착하고자 한 하나의 노력임을 강조하고 싶다. 공동체미디어의 정체성은 공동체와 공동체미디어의 관계 속에서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생성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잠정적' 산물이다. 보편 개념의 틀을 통해 공동체미디어 실천을 접근하는 것은 실천적 수위에서의 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가치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공동체미디어 실천 현장의 다이나믹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의 한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각도에서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의의와 가능성/잠재성을 짚어낸 후속연구들을 기대해 본다.[31]

---

30)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2016-12-30, 조례 제 4326호),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조례(2016-12-30, 조례 제 1764호), 서울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31, 조례 제 1094호) 등.

31) 추가적으로 본 연구가 1년 8개월의 참여관찰을 통해 진행된 연구임에 비해 -그리고 심층인터뷰 양에 비해- 지면의 한계로 연구결과를 제한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해 현장연구에 도움을 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 현장연구과정에서 얻은 값진 자료들과 인터뷰 내용들은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진숙 (2017). 공동체 미디어 담론 흐름과 연구경향. 〈한국언론정보학보〉, 81권, 9-39.

강진숙・소유석 (2016). 공동체 라디오 동작FM의 다중참여와 실천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292-318.

강진숙・이은비 (2013). 공동체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방송문화연구〉, 25권 2호, 37-66.

강진숙・이은비 (2014). '서울마을미디어'의 다중 실천과 문화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권 3호, 143-185.

김영찬 (2008). 이주노동자 미디어의 문화정치적 함의. 〈방송문화연구〉, 18권 1호, 37-59.

김영찬 (2015). '1장. 질적 연구의 특성: 민속지학을 중심으로',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37-73쪽).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서울: 컬처룩.

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김유정(2017).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한국언론정보학보〉, 81권, 40-74.

김지윤 (2015). '봉제마을' 창신동. 〈도시연구〉, 14권, 125-157.

김재희 (2017). 〈시몽동의 기술철학〉. 파주: 아카넷.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7. 3. 22).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녹화방송자료: URL: https://www.youtube.com/watch?v=GXSdQnVIZfo

문화사회연구소 (2014.11).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반명진・김영찬 (2016).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8권, 79-115.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마을미디어 가이드북, 〈떠나자! 서울마을미디어여행〉.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7). Annual Report 2016 - 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 〈지금은 마을미디어 시대〉.

안진・채영길 (2015).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방송학보〉, 29권 6호, 94-136.

이오현 (2015). '7장. 미디어 생산자 연구 행하기',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301-348쪽).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서울: 컬처룩.

이희랑 (2013). 〈공동체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 지역 중심의 소통 공동체적 관점과

실천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희랑 · 김희영 (2017). 마을미디어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1권, 253-299.

채영길 (2015). 〈커뮤니티 미디어 이론과 실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채영길 · 김용찬 · 백영민 · 김예란 · 김유정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2권 2호, 4-46.

채영길 (2017). 마을미디어의 참여와 정치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과 사회〉, 25권 1호, 141-194.

최성은 (2014). 〈공동체 라디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겨레신문 (2013. 6. 13). 서울시, 창신 · 숭인 뉴타운 지구 통째로 첫 해제.

황수영 (2017).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서울: 그린비.

伊藤 守 (2013). 情動の權力: メディアと共振する身體. せりか書房. 김미정 역(2016). 〈정동의 힘: 미디어와 공진하는 신체〉. 서울: 갈무리.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UK: Polity Press. 이일수 역(2009). 〈액체근대〉. 서울: 강.

Deleuze, G. (1978, 1980, 1981). "Lecture transcripts on Spinoza's concept of affect". http://webdeleuze.com/php/sommaire.html, 서창현 (역)(2014).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 노동과 다중〉 (21-138쪽). 서울: 갈무리.

Jankowski, N.W. (1991). 'Chapter 9. Media contexts, qualitative research and community media' in Jensen, K. B. & Jankowski, N. W. (Eds).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pp. 163-174). London: Routledge. 김승현 · 김신동 · 김영찬 · 김예란 · 윤태진 · 이상실 · 전규찬 (역)(2004). 〈미디어 연구의 질적 방법론〉 (215-229쪽). 서울: 일신사.

Massumi, B. (2011). *Semblance and event: Activist philosophy and the occurrent Arts*. Massachusettes: MIT Press. 정유경 (역)(2016), 〈가상과 사건: 활동주의 철학과 사건발생적 예술〉. 서울: 갈무리.

Rodríguez, C. (2001). *Fissures in the mediascape: An international study of citizens' media*. Cresskill, NJ: Hampton Press.

Rodríguez, C., Ferron, B., & Shamas K. (2014). Four Challenge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Radical and Citizens' Media Research. *Media, Culture & Society*, *36*(2), 150-166.

Simodon, G. (1958).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Éditions Aubier. 김재희

(역)(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Virono, P. (2001). *Grammatica della moltitudine – Per una analist delle forme di via contemporanee*. Catanzaro: Rubbettino Editore. 김상운 (역)(2004). 〈다중 – 현대의 삶 형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서울: 갈무리.

Williams, R. (2009[1975/1961]). 'On structure of feeling',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pp. 35-49). Jennifer Harding & E. Deidre Pribram(Eds.). New York: Routledge.

Williams, R. (1961/1984).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성은애 (역)(2007). 〈기나긴 혁명〉. 파주: 문학동네.

최초 투고일 2018년 4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8년 6월 2일

〈표〉 공동체미디어 관련 선행 연구 목록

	연도	연구자	제목	게재지
1	1999	차재영	미국의 공동체 라디오 연구	북미주학연구
2	2003.12.	이만제	소출력 FM 도입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방송통신연구
3	2004.10.	하주영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과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4	2005.07.	박천일	소출력 FM방송의 도입 현황 및 정책방향	방송통신연구
5	2005.12.	김세철, 손은정	소출력 FM방송의 활용과 지역사회 발전 - 대구 성서공동체 FM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6	2006.06.	한정미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마포 FM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7	2006.08.	성정애	공동체미디어로서 소출력 라디오의 이론적 유형에 관한 연구 - 공익성과 참여 개념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8	2006.08.	김은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소출력 라디오의 이론적 유형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9	2006.08.	박채은	임파워먼트를 위한 소통 - 대안미디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변화	서울대 석사논문
10	2007. 여름호	차재영	지역 공동체라디오와 지역대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1	2008.06.	박창원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서 공동체 FM을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논문
12	2008. 여름호	전천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 방안 - 시민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13	2008.10.	한선, 이오현	공동체 라디오와 자기 효능감 - 미국 공동체 라디오 KOPN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14	2008.11.	한선, 이오현	한 • 미 공동체 라디오 비교연구 - 하위 공론장 역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15	2009 (2008.12.)	김선희	시민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 - 금강 FM 자원활동가의 방송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16	2010.02.	최성은	국가규제와 공공지원이 공동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논문
17	2010.08.	한국 전파 진흥원	공동체라디오방송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18	2011.04.	최성은	한국공동체라디오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19	2011.08.	정빛나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	2012 (2011.12.)	김영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제작 참여 만족도 및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1	2012.12.	이혜진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국 FMYY	경제와 사회
22	2013.02.	이희랑	공동체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 지역중심의 소통공동체적 관점과 실천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23	2013.02.	정수열	지역 매체의 적소 연구 -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정보 가치와 수용자 기대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24	2013.09.	김은규, 최성은	영국 공동체 라디오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5	2013.09.	김은규, 최성은	정규방송 도입 이후 공동체 라디오 운영구조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 전문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연도	연구자	제목	게재지
26	2013.12.	강진숙, 이은비	공동체 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 창신동라디오 〈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7	2014.08.	장시연	커뮤니티 미디어 마포 FM이 매개한 소통 구조에 관한 연구 - 네트워크, 상호주관성, 권능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28	2014.08.	윤바예	커뮤니티 미디어 참여자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 - 마을 미디어 도봉 N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29	2014.09.	강진숙, 이은비	서울마을미디어의 다중실천과 문화정치적 의미에 대안 연구 -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30	2014.11.	문화 사회 연구소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문화사회연구소
31	2014.12.	김희영	마을과 사람을 잇는 마을미디어	국토연구원
32	2015.05.	홍숙영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스토리설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33	2015.11.	안진, 채영길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활동과 권능화	한국방송학보
34	2016.05.	장시연, 채영길	공동체 미디어의 참여자 네트워크 특성과 의미 분석 - 마포FM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35	2016.06.	원도연	미디어는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나	미디어와 교육
36	2016.06.	채영길, 김용찬, 백영민, 김예란, 김유정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이론
37	2016.08.	반명진, 김영찬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 마포 FM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8	2016.08.	김동규	우리나라 공동체 라디오의 편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39	2016.10.	강진숙, 소유석	공동체 라디오 동작FM의 다중참여과 실천사례 연구 - 네그리, 하트, 비르노의 다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0	2017.02.	강진숙	공동체 미디어의 담론 흐름과 연구경향 - 학술논문의 주제, 방법,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	2017.02.	이희랑, 김희영	마을미디어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42	2017.02.	김예란, 김용찬, 채영길, 백영민, 김유정	공동체는 발명되어야한다 - 서울시 마을미디어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3	2017.02.	채영길	마을미디어 참여와 정치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과 사회
44	2017.06.	최순희	온라인 공동체 미디어 실천연구 - 대덕밸리라디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45	2017.09.	유숙, 강진숙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의 다중 실천과 정동 체험에 대한 연구 - 미디어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분석	한국방송학보

Abstract

Making Sense of the Meanings of Community Media Practices

A Field Study of Changshin-dong Radio <Dum>

Dr. Young Chan Kim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yeong Jin Ban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locate the media practices of community members within the concrete milieu of local community Chngshin-dong, and then to make sense of what the community media practices mean for them in their everyday lives. Drawing upon the thick data collected from a year-and-a half-long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in the field, researchers came up with such key findings as follows. First, community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community media production and consumption as well as other community activities and social events- went through changes in terms of emotions/feelings/affect and experience a new sense of community and belonging. Second, the identity of community media seemed to depend on the outcome of formative communication processes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media.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ok into the interwoven dynamics in the field of community media production/consumption and articulate them with other communal activities. It maps out the complex contours and spectrum of community media within the specific context of quotidian lives of the community residents.

Keywords: Community Media, Fieldwork, Participant Observation, Media Practices, Sense of Community